

# 한국 구석기 문화에 대한 몇가지 (韓國 舊石器 文化에 對한 몇가지)

延世大學校 博物館長 孫 寶 基

## 1. 머리말

구석기 문화(舊石器 文化)라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다. 사람이 돌을 깨어서 연장을 만들어 썼던 최초의 시기가 2백만년 전으로 증명되고 있어 얼른 생각에 떠들지 않는 느낌이다. 아프리카의 올드바이나, 자바의 쌍기란 등에서 나온 사람의 뼈는 같은 층위의 암석을 방사성 동위원소(아르곤과 칼륨)에 의하여 측정(測定)한 결과(結果) 이같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오랜 연대(年代)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가 끝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約) 1萬2千年 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는 중석기 시대(中石器 時代)가 8千年 전까지 계속되고 그후 신석기 시대(新石器 時代)가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동기 시대(靑銅器 時代)도 4千 또는 5千年전에 시작하여 2千500년 전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세계(世界) 여러 지역(地域)에서 차이가 있고 어느 지역(地域)에서는 얼마전 까지도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직도 흙이 없고 토기(土器)도 만들어 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토기(土器)대신에 다른 나무그릇을 만들어 쓴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까지 만하여도 뉴우질런드나 타스마니아의 사람들은 돌을 깨서 도구로 썼던 것이다.

사람은 별거숭이로 맨주먹으로 태어나서 다른 짐승과 겨루고 그들을 누르고 살게 된 것이 인류(人類)의 선사문화(先史文化) 특히 구석기(舊石器)시대에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걸어다니고 손을 자유로이 쓸 수 있었고 두개골의 크기도 컸다는 것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을 바라보고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다.

고릴라나 침팬지도 열매를 딸때 옆에 있는 두개의 장대를, 즉 이어서 하나의 장대에 다른 장대를 끼어 딸 수는 있는 것이 밝혀졌다. 즉 즉석에서 도구(道具)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깎거나 자르거나, 또는 돌을 깨고 떼어서 잔손질하여 날을 만들거나 연모를 장만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힘들여 연모를 만들고 내일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점이 사람은 구석기 시대(舊石器 時代)부터 다른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사람이 짐승중의 영장(靈長)이 된 중요(重要)한 이유(理由)인 것이다.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와 유물(遺物)을 몰랐기에 여러 나라 손님 앞에서 곤경(困境)에 빠진 세관원이 생각한다.

세관원 : 이걸 뭐지요?

입항자 : 석기입니다.

세관원 : 예? 석기요?  
 입항자 : 돌 연장이지요.  
 세관원 : 돌 연장?  
 입항자 : 예, 구석기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돌을 깨서 만든 연장이지요  
 세관원 : 화약이나 무기 같은 거 없습니까?  
 입항자 : 화약이요?  
 세관원 : 탕! 탕!(석기를 검사대에 두들긴다)  
 입항자 : 이 무식한 사람아! 당신은 교육을 받았을 텐데 몇 만년전의 인류가 만든 석기도 모른다 말이오. 역사도 모르고 인류도 모르고 문화재도 모르는 무식자가 세관원이란 말이요?

준엄한 얼굴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소리에 다른 세관원들이 모인다.

홍콩 국제공항(國際空港)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야기다.

구석기(舊石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해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발견(發見)도 어려웠고 또 발견하여도 의심하고 우리 나라엔 구석기(舊石器)가 없다고 하여 왔다. 따라서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고 알면 쉬운데 그것을 연구(研究)하지 않고 고고학(考古學)이 정치도구(政治道具)로 씌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한국에 구석기 문화(舊石器文化)가 없다고 주장되어 왔었다.

## 2. 우리 나라 구석기의 분포

한국(韓國)에서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의 유적(遺蹟)이 발굴(發掘)된 것은 1963년 부터 이다. 함경북도(咸鏡北道) 웅기군 서포항이라는 라군의 안쪽으로 굴포리가 있다. 북한(北韓)에서 비료로 쓰기 위하여 조개껍질을 수집(粹集)하던 중 유물(遺物)이 나와 이것을 보고(報告)하였고 북한(北韓)의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발굴(發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발굴은 1963년 7~8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다음 해인 1964년에는 그곳에서 5킬로 정도 북쪽으로 부포리(鮪浦里) 덕산(德山)에서 지표채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4년 5월에 홍수(洪水)가 지나간 뒤 금강(錦江)을 답사(踏查)하여 언덕이 무너진 곳에서 석기(石器)를 찾은 것이 계기(契機)가 되어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유적(遺蹟)지에서는 구석기 유적(舊石器遺蹟)발굴이 금년까지 9년간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진 발굴 조사(發掘 調査) 작업(作業)으로는 중요한 것이다. 1964년 11월부터 시작한 발굴이 금년 봄까지 9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지표조사(地表調査)를 통해서나마 여러 곳에서 구석기 유적을 찾았다. 이번엔 팔당수몰지구(水沒地區)에서 찾은 것도 5-6군데가 된다. 그 밖에도 한강유역(漢江流域)에서 만도 역삼동, 가락동, 암사동, 금암리, 구암리 등지에서 나타난다. 이같이 한강유역의 여러 곳에서 구석기유물(舊石器遺物)은 채집(採集)되고 화성군, 안성군, 수원시 등지에서도 찾았다. 또 경북경주시(慶北慶州市)에서와 태화강의 반구동에서도 찾은바 있다. 바다를 건너 강화도에서도 찾았고 전남(全南) 순천(順天)의 구릉지대(丘陵地帶)에서도 채집(採集) 되었다.

금강 유역에서도 소학리, 대평리, 마암동굴, 연기군일대에서 찾았다.

이 같이 구석기유적(舊石器遺蹟)의 분포(分布)는 동(東)·서(西) 해안(海岸)과 강(江)의 유역(流域)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발굴(發掘)된 것만을 가지고 한국 안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문화의 전모(全貌)를 분포(分布)와 관련시켜 말하

기에는 아직 빠른 것이다. 앞으로 구석기 문화의 유형(類型), 분포(分布) 전파(傳播), 이동(移動) 등에 관한 문제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이 구석기 문화유적의 꾸준한 조사(調査)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여 두고 싶다. 또 각 지역의 성격(性格)의 차이(差異)와 그 환경(環境)의 차이(差異)등을 연구하고 그 각 문화(文化)가 다른 동(東)아시아 지역(地域)과 갖는 관련 등을 밝히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바 있다.

### 3. 구석기의 연구

구석기의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석기의 연구가 앞서게 된다. 당시(當時)의 사람들은 자연(自然)으로 주어진 돌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돌에 가공(加工)을 하게 된다. 그 가공(加工)이란 그들이 이룩한 문화(文化)의 내용(內容)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문화(文化)의 단계 문화(段階文化)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지어 지는 것이다. 구석기시대에 돌 이외에도 나무, 뼈, 뿔 등을 썼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돌 연장에 비할때 극히 적은 편이다. 삭아서 없어지기 쉬운 까닭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가 석기에 제한(制限)되는 수가 있다.

석기(石器)에 대한 연구(研究)란 인간(人間)이 돌에 가한 가공(加工)을 보고 또 그 쓴 흔적을 보고 분석하여 그들이 지녔던 생각, 사고(思考), 믿음과 그들의 행동, 사회구조 등과의 연관관계를 밝히려는데 있다. 석기(石器)를 보고 그들이 만든 방법(方法) 즉 떼어서 쓴 기술 또 떼기에 쓰여진 망치, 모룻돌 등을 알아내고 그 발달(發達)의 단계(段階)를 찾아 낼 수도 있다. 석기(石器)의 날을 조사하여 석기의 쓰임새는 물론 그 석기가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어떻게 쓰였나, 또 얼마나 쓰였나, 하는 것도 찾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석기에 생긴 녹으로 얼마나 오래 되었나도 알 수 있는 때도 있다. 그 석기(石器)에 쓰인 쪽에 유기질(有機質)이 묻어 남아서 화석(化石)이 된 경우도 있어 무엇을 자르고 찍고 깎았나를 찾아 낼 수도 있다.

많은 부스러기를 맞추고 격지를 맞춰서 원래 만들기 전의 모양은 물론(勿論) 어떠한 수법(手法)으로 석기(石器)를 만들었는가를 찾아 낼 수도 있다. 이같이 석기(石器) 하나 하나에 대해서 연구(研究)가 이루어지고 또 석기(石器)의 특징(特徵)을 찾아내는 작업(作業)도 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석기(石器)의 구성(構成)이 그 유물(遺物)의 주인공(主人公)들의 생활내용(生活內容)을 밝혀 주는 데는 가장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된다. 이것은 통계(統計)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그 각종(各種)의 석기(石器)가 차지하는 비중(比重)에 따라 생활내용(生活內容)을 알게 된다. 같은 사람들의 석기(石器)일지라도 한곳에서는 일정(一定)한 행동(行動)이 주가 되고 다른 곳에서 다른 활동(活動)을 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또 계절(季節)에 따라 생활내용(生活內容)도 달라지고 지역(地域)에 따라 달라진 것 등을 찾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석기(石器)의 구성(構成)으로 보아서 한 유적(遺蹟)은 주된 생활근거(生活根據)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고 다른 곳은 석기(石器)의 재료(材料)를 얻기 위한 간이근거(簡易根據)였다고 나타난다거나 또 다른 곳은 석기(石器)를 만들던 작업장(作業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시간(時間)의 차이(差異)는 있어도 생활(生活)의 근거(根據)이어서 석기(石器)를 만들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였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 먹기도 한 것이 한곳에서 잇달아 옆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의 생활(生活)을 찾아내는데 이같이 석기(石器)를 가지고 밝힐 수 있는 점이 참으로 많은 것이다. 석기(石器)의 형태(形態), 수법(手法)으로 보아 그 전체(全體)의 특징(特徵)으로 보아 구석기 시대(舊石器 時代)의 단계(段階)를 가려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地域)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찾아 낼 수 있는 근거(根據)가 되기도 한다.

석기(石器)를 분류(分類)하는데도 적지 않은 노력(努力)과 분석(分析)과 현미경관찰(顯微鏡觀察)등이 필요(必要)하다. 분류(分類)에 있어서는 그 수법(手法)(만드는데 쓰여진), 모양(模樣) 또 쓰여진 자국 등을 헤아려내야 한다. 분류(分類)에 있어서도 이러한 여러 관점(觀點)에서 고찰(考察)되어야 한다. 서구(西歐)나, 중국(中國)이나 ,소련(蘇聯)이나 여러 곳에서 분류(分類)에 있어서 꼭 같지 않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왜냐면 석기(石器)의 형태(形態)가 꼭 같지는 않고 좀 차이(差異)가 나는 점(點)이 있다. 이에는 돌의 질(質)이 다른 까닭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點)도 있지만 용도(用途)에 있어서 다를 수 있기도 한 것이다. 또 석기(石器)의 명칭(名稱)은 뒤에 연구(研究)하는 구석기(舊石器) 학자(學者)들이 지은 것으로 구석기인(舊石器人)이 그 같이 불렀다고 할 수는 없는 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問題)가 되는 것은 이미 서구학자(西歐學者)들이 이름 붙인 석기(石器)의 명칭(名稱)에는 기능(機能)을 따라서 붙인 것과 모양(模樣)을 따라서 지은 것과 또는 때려낸 수법(手法)에 의하여 붙인 것이 있다. 그리하여 명칭(名稱)에도 다소(多少) 차이가 나므로 모든 명칭(名稱)에 있어서 통일(統一)을 기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이리하여 구석기(舊石器)의 명칭(名稱)은 중국(中國)에서 번역(翻譯) 또는 창조(創造)되었고 일본(日本)에서 일본(日本)말로 번역(翻譯)하고 한자(漢字)를 빌어 쓰고하여 영(英), 독(獨), 불(佛), 중(中), 일(日)의 5가지 용어(用語)의 영향(影響)을 우리 선사학자(先史學者)들이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름이 우리말로 듣기에는 무척 어렵고 어색하고 일반(一般)에게 바로 알리기에는 현실성(現實性)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많다. 예(例)를 들면 영국(英國)에서 hand axe라고 하고 불란서(佛蘭西)에서는 coup de point라고 하고 또 bifac라고 하기도 한다. 중국(中國)에서는 감벌기(砍伐器)라고 하면 일본(日本)에서는 니기리 쓰지 또는 니기리 오노(악부(握斧))라고 한다. 이 모두가 어렵고 꼭 좋은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구석기학(舊石器學)에서 적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들 이름을 어떠한 원칙(原則)에서 정리(整理)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필요(必要)한 일이었다. 복잡(複雜)한 명칭(名稱)을 일본(日本)에서 재수입(再輸入)한다던가, 중국(中國)에서 재수입(再輸入)한다던가 또는 영어(英語)나 불어(佛語)를 그대로 쓴다는 것도 학문(學問)을 어렵게 하는 효과(效果)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석기(石器)의 기능(機能)을 주로 하여 그 쓰임새를 생각하고 이름을 그 원칙(原則)에서 끌어내 보았다. 즉 그 석기(石器)들의 제작법(製作手法)이나 형태(形態)는 그 속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능(機能) 즉, 사용목적(使用目的)을 헤아리어 석기(石器)의 명칭(名稱)을 우리말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 명칭(名稱)을 사용(使用)한지 얼마 후(後)에 석장리에서 발굴(發掘)에 참가(參加)하는 마을 사람들도 이를 알고 석기(石器)를 분류(分類)하는 분까지 생겼다. 오히려 일본(日本)말이나 영어(英語)에 익은 학자(學者)들이 서먹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석기(石器)의 연구(研究)도 이같이 쉬운 우리말에서 찾고 또 그것을 과학원리(科學原理)에서 찾아서 썼던 관계로 석장리에서 발굴(發掘)에 참가(參加)한 사람들은 석기(石器)를 분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석기(石器)를 찾아오곤 하는 일이 많았다. 이같이 우리의 귀한 구석기(舊石器)를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찾아낼 수 있게끔 된 것은 구석기(舊石器) 연구(研究)에 큰 발전(發展)을 가져오게 될 것이 틀림없다. 유적지(遺蹟地)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한 조각의 돌도 격지도 그것이 사람의 손이 간 것이면 쉽사리 찾아 낼 수 있게 하는데 연구(研究)의 폭이 넓어지고 구석기(舊石器)라는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에도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 4. 우리 나라 구석기 명칭

이제 구석기(舊石器)의 명칭(名稱)에 있어서 수법(手法)에 관한 것과, 석기분류(石器分類)에 관한 것, 재료(材料)에 관한 것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석기(石器)의 분류(分類)에 있어서 석기(石器)의 사용목적(使用目的)을 더 큰 차원에서 나누어 볼 때 석기(石器)에는 1. 사냥이나 도살(屠殺)에 쓰인 것과 2. 부엌에서 조리용(調理用)으로 쓰인 것과 3. 일반(一般) 연장으로 땅을 파고 구멍을 뚫고 나무를 깎고 자르는 등 일반용(一般用)으로 쓰인 것과 4. 석기(石器)를 만드는데 쓰여진 연장과 5. 나머지, 부스러기 6. 예술활동(藝術活動)으로 그림을 그리고 새긴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이 범주(範疇)에 따라 석기(石器)의 이름을 들고 간단(簡單)한 쓰임새를 설명(說明)해 보기로 하겠다.

##### 1. 사냥, 도살용(屠殺用) 석기(石器)

ㄱ. 주먹도끼(hand axe) : 여러 목적(目的)으로 쓰였던 석기(石器)로 찌르고, 자르고, 찍고, 가죽을 벗기고, 깎는등 여러 가지로 쓰였다. 때로는 땅을 파는데도 쓰였으나 크기로 보아도 도살(屠殺)에 쓰인 것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석기(石器)이다. 서구(西歐)에서 인도(印度)까지는 이 석기(石器)가 주된 석기(石器)로 나타나지만 동아시아(東亞細亞)쪽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석기(石器)다.

ㄴ. 찍개(chopper chopping-tool) : 다목적석기(多目的石器)의 하나이다. 외날 찍개(chopper, uniface)와 쌍날(biface)찍개가 있다. Movius에 의하면 외날을 chopper, 쌍날을 chopping-tool 이라고 하였지만 chopper uniface와 biface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妥當)하다고 생각한다. 이 외날찍개는 외날이 가장 오랜 형태(形態)의 것으로 울드바이나, 바로네 동굴(洞窟)같은 곳에서 이러한 외날 찍개가 주로 나온 것이다. 이 외날 찍개에서 쌍날로 발전(發展)하고 다시 그것이 주먹도끼로 발전(發展)하는 것이다.

이 찍개에서 자갈돌 찍개에 이어 판자풀 찍개, 둥근찍개(disc)도 차츰 발전한다.

ㄷ. 찌르개(point) : 찢어서 짐승을 잡고 구멍을 뚫기도 하는 석기(石器)로 도살(屠殺)이나 사냥하는데 쓰인 것이다. 창(槍)끝이나 화살촉도 이에 포함(包含)된다. 크기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에 주먹으로 쥐고 쓰는 찌르개가 가장 큰 것이고 도살용(屠殺用)으로 분류(分類)되고 창끝 화살촉은 사냥용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ㄹ. 꽃개(barb, composite tool) : 작살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나 뼈에 홈을 파서 간격을 두고 끼어서 송진으로 붙이고 물고기 등을 잡는데 썼다.

ㅁ. 사냥돌(bola, missile stone) : 미사일의 원리(原理)가 이곳에서 나왔다. 둥글게 다듬은 주먹크기만한 돌을 2~5개를 짐승의 힘줄로 매어 던져서 잡는 석기(石器)이다.

##### 2. 부엌 조리용(調理用)(kitchen tool)

ㄱ. 자르개(cleaver knife, tranchet) : 짐승의 살을 저미고 가죽을 자르는데 쓰인다. 여러 가지 형태(形態)가 있어 가죽칼날, 비긴날, 식칼날 등으로 나뉜다.

ㄴ. 긁개(scraper) : 가죽을 벗기고 살을 떠내는 등 옆으로 긁어내듯 쓰는 석기이다. 가장 많이 쓰인 석기의 하나이다.

ㄷ. 밀개(end-scraper) : 뼈에서 살을 밀어서 떼고 뼈 속의 골을 파는 등에 쓰이고 긴 격지의 끝부분에 잔손질한 석기이다.

ㄹ. 돌날(blade) : 간접떼기에 의하여 떼어낸 격지, 평행선의 능선이 보통 등에 있고 칼날 같이 쓰인다. 부싯돌이나 흑요석 같은 단단하고 치밀한 좋은 암질이 먼도도 할 수 있

을 정도이다.

### 3. 일반연장(general-purpose tool)

- ㄱ. 주걱대패(plane) : 대패같이 쓰이고 석기가 큰 편으로 주먹으로 쥐어서 쓴다. 날은 가로 날로 되어있다.
- ㄴ. 주먹쟁이(pick) : 끝이 무디지만 땅을 파기에 편한 곡쟁이와 같다. 주먹으로 쥐어서 쓰게 되어있다.
- ㄷ. 깎개(Hand adze) : 까뀌모양으로 나무나 뼈를 깎는데 쓰인 것인데 긴 석기로 외날이 많다.
- ㄹ. 새기개(graver, burin) : 돌이나 뼈에 새기는데 쓰인 석기로 예술용기로 볼 수 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 ㅁ. 뚜르개(awl, drill borer) : 뼈나 뿔에 구멍뚫는 석기이다. 송곳날 끝날(양쪽 칼날)등을 가진다. 화살을 곧게 바로잡는데 쓰인 뼈에 큰 구멍을 뚫는데도 여러 가지 뚜르개가 쓰였다.
- ㅂ. 홈날(notched tool) : 석기의 날에 홈떼기를 하여 나무 가지나 뼈를 자르기에 좋게 만든 석기이다. 오목날을 가지는 석기로 예리하다.
- ㅅ. 켜개(flaker) : 긴 석기의 한끝에 좁은 직선날을 가지고 있으며 켜는데 쓰인 석기로 작은 것이 많다.
- ㅇ. 톱니날(denticulate) : 석기의 날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잔술질을 하여 톱니날같이 만든 석기로 나무나 줄기를 자르는데 쓰인 석기이다. 톱의 원리가 중기 구석기 때부터 생긴 것을 알려준다.

### 4. 석기를 만드는 연장

- ㄱ. 들마치, 망치(hammer stone) : 석기를 만드는데 쓰인 석기로 작은 것으로 500g 정도는 마치, 그 이상 큰 것은 망치이다.
- ㄴ. 원통망치(cylinder hammer) : 원기둥 모양으로 긴 망치로 자갈돌, 뼈, 뿔 등이 썩었다. 이 원통망치로 때면 격지가 얇고 긴 것이 나온다. 수법이 발전된 뒤의 일이다.
- ㄷ. 모룻돌(anvil) : 석기 만들때 밑에 받치는 돌이다. 대장간의 모루와 같다. 모루 망치 때기와 부딪쳐 때기, 간접 때기 등에서 쓰였다.
- ㄹ. 때개(flaker) : 원통망치보다 큰 편인데 요즈음 장도리처럼 끝이 크고 무겁고 잡이가 긴 석기이다.
- ㅁ. 쪼으개(pecker) : 손에 쥐기 좋은 기름한 망치이지만 끝이 무디고 짧은 것이다. 등을 무디게 하는데 많이 쓰였다.
- ㅂ. 무디개(blunter, fabricator) : 잔손질하는데 눌러서 하는 연장으로 돌, 뼈등의 작은 것이 많이 쓰였다.

### 5. 나머지. 부스러기

- ㄱ. 몸돌(core) : 때기를 베풀었을 때 격지를 떼고 난 원래의 몸체가 되는 돌이다.
- ㄴ. 격지(flake, waste) : 직접 때기에 의하여 떼어낸 얇은 격지로서 턱이 두텁고 끝이 얇은 것이 많다.
- ㄷ. 돌날몸돌(blade-core) : 간접 때기로 돌날을 떼어내고 남은 몸돌로서 평행선으로 떼어낸 선이 여러 개 남아있다.
- ㄹ. 조각(split) : 격지를 떼기 전에 돌을 반으로 쪼갠것, 반쪼갬 수법등에 의한다.
- ㅁ. 덜된연모(blank) : 석기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잔손질도 한 흔적도 있는 상

태의 돌이다.

비. 실패조각(refuse) : 석기를 만들다 실패하여 버린 돌.

스. 부스러기(spall) : 석기를 만들다 떨어지는 조그만 조각부스러기를 말한다.

#### 6. 새겨진 돌

기. 조각된 돌(engraved rock) : 돌에다 새기개로 새겨놓은 돌로 예술품을 말한다. 음각, 양각, 입체상 등이 있다.

나. 조각된 뼈(engraved bone) : 뼈에다 새긴 예술품.

디. 그어진 돌(striated rock) : 뼈나 뿔을 갈아 쓰거나 석기로 쓰다가 자국이 났다거나 돌을 동물이나 사람이 밟아서 돌끼리 그어진 것, 빙하가 물러갈 때 그어진 자국도 포함된다.

### 5. 구석기 문화의 연구

위와 같이 명칭이 이룩되고 그 기능이 밝혀지고 통계상의 분포, 구성 등이 나타나서 성격, 특징, 생활등에 관한 것이 구석기를 가지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의 자연환경이라던가 그들의 생활의 전모는 밝혀지기 어렵다.

따라서 그 당시의 자연환경도 알아야 하겠고 그들의 행동도 그 이상 밝혀야 하고 그들의 식생활도 밝혀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는다. 그리하는 까닭은 그때의 생활을 재구(再構) 복원(復元)하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의 생활환경을 밝히는 데는 그때의 토양이 쌓인 환경을 비롯하여 기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 등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토양의 검사에 의하여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바람에 불려 선거? 물에 흘러서인가? 그 자리에서 부서져서 생겼는가 등을 조사하고 어떠한 기후가 계속되었는가 등도 찾는다. 이에 토양 속에서 옛날 꽃가루(花盆)가 화석이나 탄화된 것을 찾아서 현미경으로 검출하여 살피고 그 종자를 밝히면 기후도 알게 되고 그 꽃가루의 밀도 또는 빈도수에 따라 그때 당시의 자연을 찾아 낼 수도 있다. 그때 사람이 먹고 남긴 동물의 뼈를 보고 무엇을 잡아 먹고 살았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동물들이 몇 살 때에 잡혀 먹혔나도 찾고 또 그것을 분석하면 어느 계절에 그곳에서 살았는지도 찾아 낼 수 있다. 동굴에서는 겨울에는 깊숙히 들어가서 살고 여름에는 동굴 입구로 나와 살았다는 흔적이 이러한 동물, 달팽이, 조개 껍질을 조사하여 밝혀진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자연과학에 의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동위원소에 의한 연대측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질 구성에 대한 연대 측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구석기 문화의 연구는 자연과학에 의한 문제해결이 앞서고 그 위에 과거(過去)를 재구하는 것이 오고 그 재구에 있어서는 인류학(人類學)의 방법(方法)이 활용(活用)되고 추정과 추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6. 한국 구석기 문화연구의 현재상태

한국(韓國)의 구석기 문화(文化)는 지금까지의 발굴에서 적어도 30萬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석기 文化의 유적지 발굴은 함경북도(咸鏡北道) 웅기군(雄基郡) 굴포리(屈浦里)와 충청남도 공주군 석장리(石壯里)에서만 이루어졌으나, 그밖에 구석기 유물(遺物)이 나오는 곳은 금강유역, 남(南) · 북한강(北韓江) 유역(流域), 태화강 유역 등이며 화성, 수원, 안성(安

城), 경주(慶州), 순천(順天), 울주, 웅기군(雄基郡) 부포리 등에서도 발견되어 한국(韓國)의 여러 곳에 구석기 유물(遺物)이 나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韓國)이 빙하로 덮힌 흔적은 없으나 빙하의 인접지역(隣接地域)으로서 빙하기나 간빙기(間氷期)의 영향(影響)을 받은 것은 지층(地層)의 구성(構成)으로 판명되고 여러 지질층(地質層) 사이에 문화층(文化層)이 끼어 있는 공주 석장리에서는 전기 구석기로부터 후기(後期) 구석기까지의 문화(文化)가 있었다.

적어도 30만년(萬年) 前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석장리의 가장 오랜 문화층(文化層)을 지표아래 11m에 있는 층(層)으로 아주 거친 잔손질을 한 외날찍개와 굽개의 문화층(文化層)이다. 몸돌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석기(石器)가 주가 되고 사냥이나 부엌용 석기(石器)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이 지점이 석장리에 거주한 전기(前期) 구석기인(舊石器人)의 주(主)된 생활(生活) 근거(根據)로 보인다. 평균(平均) 기온(氣溫)은 현재(現在) 보다 9℃정도(程度) 더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바로 위의 지층(地層)에서는 세개의 석기(石器)기 나왔을 뿐으로 뚜렷한 성격(性格)을 밝힐 수 없으나 그 위의 문화층(文化層)은 굽개가 많은 문화층(文化層)이다. 그 굽개에서 날을 분석(分析)해 보면, 블록날 : 직선날 : 오목날이 19: 7 : 1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물(動物)을 잡아 가죽을 벗기는 등의 활동(活動)을 주로 하여 음식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나무나 뼈를 깎는 등의 활동(活動)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위의 문화층(文化層)에서는 역시 굽개가 많으나 깎개의 수가 늘어나고 외날전통은 계속(繼續)되면서 원초(原初)형 주먹도끼가 나왔고 또 찌르개로는 창끝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찌르개가 나온 것으로 이는 주구점(周口店) 13지점의 창칼모양 석기(石器)나 크락토니안(clactonian)의 나무로 깎은 창과 아슐리안(Achenlean)사람들이 사용하던 창끝 등의 단계로 보여지므로 이 문화층(文化層)이 전기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중기 구석기인(舊石器人)들의 활동(活動)에서 달라진 것은 예리한 날의 깎개가 늘고 홈날칼과 톱니날 칼은 만들었다는 점(點)이 두드러진다. 이는 중기 구석기인(舊石器人)이 나무나 풀줄기를 자르고 깎았던 것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기둥이나 작대기 등을 세우고 나무를 엮어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노천이 아닌 움막을 지어서 그때 그때 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화층 보다 약 1m 이상(以上) 높은 지표아래 5.6m의 지층(地層)에서는 쌍날의 주먹도끼, 주먹대패, 밀개등이 나타나며 깎개, 찌르개의 수가 늘어나고 모룻돌 떼기, 부딪쳐 떼기 등의 수법(手法)도 보인다. 또 경도를 달리하는 세가지 암질(岩質)의 모룻돌이 짝을 지어 출토되고 부스러기나 격지도 자못 많아져서 오랜동안 살면서 석기 제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돌마치나 돌망치가 모룻돌과는 좀 떨어진 곳에 나란히 줄 지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모룻돌에 부딪쳐 떼기를 한 다음 망치로 잔손질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층 위에서도 격지 석기는 적은 편이나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석영이나 편마암을 가지고는 격지 석기가 어렵고 또 수법상으로도 중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화층의 특징은 석기를 만들어 쓴 근거지로서 석기 제작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바로 밑에 얇은 염토층이 있는데 그곳에서 출토한 규질판암의 석기는 중국 북쪽 이통 수동구(水洞溝)에서 나온 석기(石器)와 흡사하다.

이 위 문화층으로 굳은 염토층에서 출토된 문화층이 자갈돌 찍개 문화층(文化層)이다. 이 문화층(文化層)에서는 석기(石器)의 재료(材料)가 반암 자갈돌로서 찍개가 쌍날이 되고 격지가 커지며 큰 격지로 만든 굽개도 있다. 수법(手法)은 클락톤 전통이 짙은 가운데 르발루아



(Levallois) 전통이 엿보이는 문화층(文化層)이다. 찍개나 주먹도끼는 원초형에 가깝지만 아슬리양식도 한 점 나왔다. 굽개에서는 라·끼나형의 것과 흡사한 것이 있고 밀개에 있어서도 콧날 등 밀개의 원초형도 보인다. 클락톤 전통을 강하게 가지는 석기의 제작(製作) 수법(手法)으로 자갈들의 원통망치를 가지고 먼저떼기를 빼놓다음 작은 들마치로 잔손질을 한 클락톤 수법(手法)이 추가되고 르발루아 수법(手法)을 이어받은 무스떼리양식의 문화(文化)로 볼 수도 있다. 석기(石器)의 구성(構成)이나 특징(特徵)으로 보아서 이 층(層)에서는 극(極)히 짧은 기간동안 살았고 가족의 수도 발굴 면적에 한해서 볼때 10명 정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화층(文化層)은 중기 구석기(舊石器)시대의 문화(文化)로 추정된다.

이 위로 석영의 모난돌들로 석기(石器)를 만들어 쓴 층위(層位)가 있는데 이 윗층(層)까지 후기(後期) 구석기(舊石器) 문화(文化)에 속(屬)하는 것으로 방사선(放射線) 탄소측정법 C<sup>14</sup>에 의하여 3만년부터 2만년전으로 밝혀진 층(層)들이다. 맨 윗층(層)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같이 밀개, 찌르개, 새기개 등이 많은 층이고 예술활동도 자못 활발한 시기이다. 석장리의 후기(後期) 구석기(舊石器) 집자리에서는 기둥구멍이 있고 높이 약 50cm 정도의 돌들로 담갈이에 위 쌓은 곳에 문돌이 150cm 사이를 두고 놓였고 문돌을 들어서면 불을 피워 요리했을 노지(불뚝자리)가 있고 조각해 세워졌던 개모습의 흉상, 땅바닥에 파놓은 고래등이 새겨져 있는 집자리가 나타났다. (여기서 사람과 동물(動物)의 털들이 나타나고 화분을 검사한 결과(結果) 목련과 수련이 그 시기에 자랐음이 밝혀졌다.) 이 주거지에는 동물(動物)의 발자국도 나타났다. 이 조각에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 종교의욕이 충분히 발휘(發揮)되어 있다. 또한 당시(當時)에는 돌날떼기를 터득하고 아름다운 석기(石器)도 만들고 있다. 이 후기(後期) 구석기(舊石器) 집자리의 문화(文化)는 동북(東北)아시아 중국(中國) 등의 후기(後期)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굴포리의 문화(文化)는 전기(前期)와 후기(後期) 구석기(舊石器)의 두 문화층(文化層)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고 한다.